

필리핀 방사모로 이슬람 정당의 장래: 라나오 델 수르의 옴피아당이 남긴 교훈을 중심으로*

김 동 업**

I. 머리말

최근 필리핀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이슬람 반군운동에 중지부를 찍고, 분쟁으로 얼룩졌던 민다나오 이슬람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15일 아키노(Benigno Aquino III) 대통령과 에브라힘(Murad Ebrahim) 모로이슬람해방전선(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MILF) 의장이 일본에서 전격적인 회동을 갖고, 분쟁의 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함으로써 평화협상이 급진전하게 되었다. 양측이 합의한 기본틀은 MILF측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이슬람 국가로의 분리독립 요구를 포기하는 대신, 필리핀 정부가 이슬람 지역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인정하는 1국가 2체제를 수용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양측 협상단 간의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 3월 27일 드디어 필리핀 대통령궁에서 양 측이 합의한 평화협정이 조인되었다. 본 평화협정을 바탕으로 방사모로¹⁾ 지역에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A2A03034378). 출고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HK조교수

1) 방사모로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지만, 본 글에서는 단순히 필리핀 무슬림 공동체를

는 독립적 정치체제가 탄생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방사모로 기본법(Bangsamoro Basic Law)을 입안하여 필리핀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계획된 일정에 따르면 기본법에 대한 의회 인준을 2015년 초까지 완료하고, 이어 방사모로 지역 주민투표를 거쳐 MILF가 주도하는 방사모로 과도정부(Bangsamoro Transition Authority)에게 행정권을 위임할 예정이다.

본 평화협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1국가 2체제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즉 방사모로 정부는 단순히 지방자치 정부가 아닌 독자적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체계를 갖춘 실질적 독립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외교와 국방 그리고 통화와 같은 권한은 여전히 필리핀 정부의 권한으로 남게 되지만, 기타의 영역에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다. 따라서 방사모로 지역에서는 독자적 선거를 통해 의회가 소집되고, 그 의회에서 총리(Chief Minister)가 선출되며, 그 총리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는 방사모로 지역에 의원내각제를 기본틀로 하는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필리핀 중앙정부와 분리된 방사모로 정부가 출범하면 필리핀 무슬림들에게는 그동안 가톨릭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필리핀에서 문화적 소수자로 머물렀던 정치환경에서 벗어나, 다수자로서 스스로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더불어 전체 필리핀으로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했던 의원내각제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형태를 실험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의원내각제의 특성상 정치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점 때문에 방사모로 지역에서는 이미 정당 발족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지역의 전통적 엘리트들은 방사모로 정부의 장관직을 미끼로 다양한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다는 소식이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미 널리 퍼져 있다 (Barra 인터뷰, 2014.07.31). 또한 본 평화협정의 무슬림 측 주도세력인 MILF도 다양한 외부의 지원을 받아 무장투쟁 단체에서 민주적 정당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방사모로 지역의 정치환경에서 이슬람 신앙과 무슬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전통적 정치행태에 어떠한 과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방사모로 지역의 정치뿐만 아니라 필리핀 지방정치의 역동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²⁾ 그동안 필리핀 지방정치는 유력 정치가문이 세대를 이어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다. 필리핀의 전통적 엘리트들은 평상시에 지역민들과의 견고한 후원(Patronage) 체제를 구축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선거 시에는 소위 폭력, 조직 그리고 돈(Guns, Goons, Gold)으로 대변되는 3G가 선거를 지배해 왔다. 특히 반군활동으로 인해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무슬림 지역에서의 이와 같은 선거폭력과 선거부정 행위는 여타지역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³⁾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주류 정치에서 벗어나 있었던 MILF를 포함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은 그 성공여부에 따라 필리핀 지방정치의 변화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최근 필리핀 이슬람 지역의 정치적 변화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파된 이슬람 부흥운동의 산물인 무장독립투쟁과 사회개혁운동이라는 두 개의 큰 줄기가 하나로 통합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무장독립투쟁 세력은 필리핀 무슬림 문제를 국제화하여 외부 이슬람 세계의 지원을 이끌어 냈으

2) 필리핀 지방정치의 역동성에 관해서는 류석춘·왕혜숙(2009)의 연구와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3) 이러한 정치적 행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된 대표적 사건으로 2009년 11월에 발생한 마긴다나오 학살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후보 등록을 방해하기 위해 언론인 34명을 포함해 총 59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로써 이를 기반으로 무력투쟁과 함께 필리핀 정부와의 평화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과거 수차례 평화협정이 조인되었지만 그 내용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으며, 양측 간의 무력충돌은 간헐적으로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왔다. 한편 1970년대 이슬람 부흥운동의 결과 배출된 이슬람 지식인들, 즉 올라마는 필리핀 무슬림 개혁운동의 또 다른 줄기를 형성해 왔다. 이들은 무력투쟁이 아니라 무슬림 사회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제도권 정치 속으로 뛰어 들었다. 1986년 마르코스 장기독재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화 시대를 여는 정치변혁의 시대에 편승하여 개혁을 내세운 정당을 조직하고, 일정기간 동안 정치적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최근 평화협정에 따른 방사모로 정부의 탄생을 계기로 이 두 세력이 상호 결합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필리핀 무슬림 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계기를 마련한 세력은 MILF로 대변되는 무장투쟁 세력이지만 이들이 뛰어든 정치현실은 이슬람 정당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개혁정치의 장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 올라마에 의해 추진되었던 이슬람 정당이 어떠한 정치이념 하에 어떠한 정치적 업적을 남겼으며, 또한 이들이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이는 새롭게 탄생할 방사모로 정치체제 내에서 정당정치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방사모로 과도정부를 이끌 MILF와 새로운 정치세력이 지역의 전통적 엘리트들과의 민주적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의미 있는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필리핀에서 이슬람적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라나오 델 수르(Lanao del Sur) 지역을 기반으로 탄생했던 옴피아당(Ompia Party)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한 기초자료는 마닐라와 마라위시에서 실시한 다수의 무슬림 전문가들에 대한 집중 인터뷰

내용이다.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습득한 다양한 도서와 논문, 그리고 기타 문헌 등을 참조하였다. 아직 치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필리핀 이슬람 지역에서는 외부학자들의 자유로운 조사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살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마라위시에 있는 민다나오국립대학 킹파이스알센터(King Faisal Center for Islamic, Arabic and Asian Studies)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학위논문에서 실린 현지인 설문조사 결과를 재구성하고 재해석하여 사용하였다.

II. 민주주의와 필리핀 이슬람 정당정치

1970년대 이후 확산된 이슬람 부흥운동은 정치적 측면에서 서구식 근대화가 만들어 낸 다양한 문제들을 이슬람적 원칙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신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이슬람은 단지 종교적 경건성이나 개인적 도덕성, 혹은 의식의 고양과 같은 사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 공적영역인 현실정치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한편 이슬람이 개인적 신앙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 되기도 한다. 이는 이슬람 원리가 경제발전과 같은 국민의 복리증진에 유효하며 성별이나 종교 그리고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곧 이슬람의 원리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대 대의민주주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다.

서구의 근대 민주주의체제는 교회와 세속적 권력 사이의 오랜 투쟁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정교분리라는 원칙을 형성하게 되었다. 근대화 이론에서는 이를 정치적 근대화로 설명한다. 티비(Tibi 1990: 139)는 근대화 이론에 근거한 세속화가 이슬람세계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봤다. 기어츠(Geertz 1968: 88)도 이슬람 부흥운동의 성격을 대안적인 근대화라기보다는 반근대화 운동으로 간주했다. 그에 따르면, “사상의 세속화는 근대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과학 발달과 전파의 결과이고, 또한 이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했다. 헤프너(Hefner 1997: 19)는 근대화 과정에서 종교적 상징을 이용한 전통적 권력의 약화 현상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종교를 이상적 모델로 내세워 반근대화 혹은 근대화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근대사회에서 이슬람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교일치를 지향하는 이슬람정치를 전근대적인 행태로 간주한다. 그러나 오늘날 필리핀을 포함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에 내세우고 있는 많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치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근래 아랍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이슬람이 민주주의 이념과 조화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슬람과 근대 민주주의 이념의 정합성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슬람 국가는 선지자 모하메드의 지도를 따르던 메디나 공동체를 그 원형으로 삼고 있으며, 공동체는 계시된 원칙을 법으로 지켜야 하며, 모하메드 삶의 본보기를 샤리아(Shar'ia)라고 하는 사법적 규율의 근본으로 삼는다. 계시된 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체는 이를 적용하는 보호자이자 보증인으로서 지도자를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해 경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알라께서 그들에게 성서를 계시했나니, 이로써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 알라께서는 그대를 주시하고 계시나니, 믿음을 배반하는 자를 변호하지 말라”(코란 4장 105절). 이는 지도자가 신과 국민 모두에게 책임을 지고, 무슬림은 지배자의 행위를 감시하고 충고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성수 2013: 108). 선지자의 사망 후 메디나 공동체의 지도

자들은 언제나 신자와 이슬람법의 보호를 통해 통치권의 정당성을 찾았다. 사회부조나 행정의 효율성과 같은 것은 신학적인 자격이 충족되는 한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Donoso 2013: 25-8). 즉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대 민주주의 체제와는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정치철학에서도 경전의 의미를 세속적인 일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유일한 해석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은 삶의 총체적인 방식으로 간주되고, 신의 통일성 (God's oneness, *tauhid*) 개념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성스러운 단일 원칙에 복종하는 것으로 종교와 세속의 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집트의 무하메드 압두(Muhammad Abduh)와 같은 보다 자유주의적 성향의 무슬림 학자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종교와 세속을 구분해야 하며, 후자에 많은 인간적인 여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진리로서의 신의 통일성은 특정 국가나 정치적 기구, 혹은 권력자와 일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은 지침을 제시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인내와 다원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Hefner 1997: 27-28).

이슬람의 전통적 권위체계에서 국가는 금요기도와 자카트를 제도화함으로써 주권이 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종교적 의무와 상관없이 없는 비무슬림들은 신으로부터 부여된 통치의 권위에서 벗어나 있다 (Donoso 2013: 29). 따라서 이와 같은 전통적 이슬람 국가의 권위체계는 오늘날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체제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무슬림 다수 국가에서도 원형적인 이슬람공동체와는 달리 인구의 구성이 다종족, 다문화, 다종교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이슬람의 전통적 권위체계를 그

대로 적용할 수 없게 만들며, 주어진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정치체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슬람과 민주주의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양립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서구 민주주의의 정교분리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과 이슬람의 정교일치와 주권재신(主權在神)의 원칙이 상호 대립됨을 강조한다. 한편 양립 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슬람 교리가 담고 있는 협의(*shura*, consultation), 자유(*ijtihad*, independent reasoning), 합의(*ijma*, consensus)와 같은 정신이 민주주의와 부합된다는 것이다 (김형준 2014: 208-9). 필리핀의 무슬림 학자들(*ulama*) 사이에서도 이슬람 원칙과 민주주의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23명의 울라마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Co 2013: 3), 53%가 이슬람 사상과 민주주의 원칙이 상호 양립할 수 있다고 대답한 반면, 나머지는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 때문에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의 두 입장을 놓고 보면, 양립 불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주로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양립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 선언적인 차원에서 정교분리를 내세우지만, 종교는 여전히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도자가 신의 뜻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주권재신의 원칙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키고 있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책임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더불어 경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협의나 합의와 같은 내용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서구식 민주주의 원형과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지만, ‘이슬람식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도 했다.

이슬람식 민주주의는 이슬람의 정치이념과 통치방식을 그 기본으로 삼는다. 이성수(2013: 110-112)에 따르면, 이슬람식 민주주의는 우선, 기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식 민주주의 개념 위에 먼저 신 중심의 사상이 뒷받침 되는 예배와 자카트가 확립된 사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둘째, 이슬람 성법인 샤리아가 법체계의 바탕을 이루어야 하며; 셋째, 무슬림 사회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의회체제를 구비해야 하며; 넷째,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의 삼권이 분립되어야 하며; 다섯째, 지도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외에도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와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슬람식 민주주의는 서구식 민주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개인의 자유에 대해 종교적 차원에서의 일정한 제한을 더한 민주주의 체제로 볼 수 있다. 서구식 민주주의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식 민주주의도 해당 지역의 이슬람 전통과 토착문화, 그리고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헤프너(Hefner 1997: 10)는 이슬람이 동남아에 전파된 배경이 아라비아나 북아프리카처럼 전쟁과 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무역과 인종간의 통혼에 의해 이루어졌음에 주목했다. 그는 동남아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서구와 중동의 정통 이슬람 학자들처럼 샤리아법에 기초한 법률적 접근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왕실권력을 기반으로 한 동남아 이슬람 전통에서는 올라마와 같은 독립적 종교 학자보다는 통치자가 종교 공동체의 신비주의적 지도자로 간주되었다. 그는 신앙의 수호자이고, 세상에서 신의 그림자이며, 신비로운 힘을 가진 ‘완벽한 인간’으로 간주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필리핀 이슬람 지역의 전통적

인 권위체제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동남아 이슬람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필리핀의 전통적 무슬림 사회는 술탄(Sultan)과 다투(Datu)와 같은 지역 통치자를 중심으로 권위체계가 형성되었다. 벤틀리(Bentley 1995: 245-284)의 연구에 등장하는 마라나오 지역 전통적 엘리트 디마포로(Mohamad Ali Dimaporo)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벤틀리에 따르면, 전통적인 필리핀 무슬림 사회에서 다투(Datu)는 권력분산적인 경향이 강한 사회의 구심력 역할을 했으며, 두려움과 존경이라는 양면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군림했다. 통치자의 권력은 질서나 정당성과 같은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자체가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다투가 이슬람법이나 관습을 강요할 힘이 있다면, 동시에 그것을 거스를 힘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필리핀 무슬림 사회에서 이와 같은 전통적 권위체계는 1935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한 근대적 선거제도에 의해 일정부분 변화를 겪었다. 일부 전통적 엘리트들은 선출직 정치인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정치가문의 명성을 이어갔으며, 일부는 근대화의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하고 새로운 경쟁자에 의해 밀려나기도 했다 (Panda 2009: 14). 한편 인근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필리핀 무슬림은 가톨릭이 지배적인 국가 내에서 극히 소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정치적 현실에 놓여 있다. 무슬림 정치가문을 연구한 아비날레스(Abinales 2000, 134-145)에 따르면, 무슬림 지역의 전통적 엘리트들은 그 권력기반을 지역주민들에게 두지 않고, 주로 중앙정치와의 연계에서 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앙 의존적 권력기반은 무슬림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특히 비무슬림 이주민의 유입으로 촉발된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갈등에 대해 무슬림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이 무슬림 공동체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고조시켰다. 이처럼 필

리핀 무슬림 공동체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전통적 엘리트들에 대한 대안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필리핀 이슬람 부흥운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김동엽 2013: 273-6). 이슬람식 교육의 확대는 필리핀 무슬림 개인과 사회 전반에 무슬림 정체성의 강화와 이슬람식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켰다. 또한 마닐라와 아랍 국가에서 유학한 새로운 무슬림 지식인들이 필리핀 무슬림 사회가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분리독립을 위한 무장투쟁 조직들과 세력을 규합하여 제도권 정치에 뛰어든 올라마 정당이었다.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독재정권의 붕괴는 이슬람 지역정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87년 제정된 새로운 헌법에 이슬람자치지구 (Autonomous Region of Muslim Mindanao, ARMM)의 설치가 명문화되었고, 1989년 11월에 법령 제6734호를 통해 ARMM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는 1976년 마르코스 정권과 합의한 트리폴리 협정의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함으로써 반군단체로부터 거부당했다. 1996년에 라모스 정부는 당시 최대 반군조직이었던 무슬림민족해방전선 (Muslim National Liberation Front, MNLF)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새로운 ARMM을 출범시켰으며, 2002년 8월 14일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의 4개 도에다 추가로 1개 도와 1개 시가 ARMM 포함되었다 (Lingga 2005: 1). 이 평화협정에도 모든 무슬림 반군단체가 동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더 급진적인 반군단체인 MILF의 세력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아키노 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사모로 정치체제 탄생과 관련된 정치적 변화는 1996년 당시 라모스 정부와 MNLF가 체결한 평화협정과 많은 점에서 흡사하다. 당시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양한 개발계획이 추진되었고, MNLF가 ARMM 정부를 주도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당시의 평화 협정은 필리핀 무슬림 정치발전에 중요한 전기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메이스버거(Meisburger 2013: 20-21)에 따르면, MNLF 지도자였던 미주아리(Nur Misuary)가 중앙의 권력자들과 연합함으로써 MNLF를 민주적 정당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정당정치이다. 정당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화 하며, 또한 선거라는 국민의 선택과정을 통해 집권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정당의 활동은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필리핀 정당정치의 현실은 이러한 민주적 역할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정당의 제도화 수준도 낮아 대부분 정당들이 제대로 된 조직과 정당원, 그리고 사무실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김동엽 2008). 이러한 필리핀 정당정치의 특징은 무슬림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앙의 정당과 연결된 전통적 엘리트들 사이의 경쟁은 각종 부정부패, 그리고 폭력을 수반해 왔다.

최근 MILF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방사모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필리핀 무슬림 지역에 이슬람식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4년 3월 14일 조인된 평화협정에 따라 출범할 방사모로 정부는 1국가 2체제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원내각제를 기초로 한 방사모로 정부의 등장은 정당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방사모로 지역에 등장하게 될 정당들, 특히 기존의 전통적 엘리트들에 의한 정당들과 경쟁하게 될 개혁정당들의 성공 여부는

무슬림 지역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정당정치의 개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에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등장했던 옴피아당(Ompia Party)⁴⁾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방사모로 지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Ⅲ. 옴피아당의 출현과 전개

1) 옴피아당의 출현 배경

필리핀 무슬림 공동체는 13개의 주요 종족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언어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필리핀 무슬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종족은 따우숙(Tau Sug, 해류의 사람), 마긴다나오(Magindanaw, 범람원 사람), 그리고 마라나오(Magindanaw, 호수의 사람) 등 세 집단이다. 지역적으로 따우숙은 민다나오 남서부에 작은 섬들로 구성된 술루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마긴다나오는 민다나오 섬 남서부 평원 지역에 거주하고, 마라나오는 마긴다나오의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라나오 호수 인근에 거주한다. 이들은 각기 따우숙, 마긴다나오, 그리고 마라나오라는 지방언어를 사용하며, 종족적 정체성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필리핀 행정구역 구분상 지역9 (Region IX)와 지역12 (Region XII), 그리고 이슬람자치지구(Autonomous Region of Muslim Mindanao, ARMM)에 분포하고 있다. 필리핀 민다나오 전체의 인구구조는 크리스천이 약

4) 옴피아(Ompia)는 마라나오 언어에서 악으로부터 선으로, 그릇된 것에서 올바른 것으로, 이슬람이 알려지기 이전 '무지의 시대'(Jahiliyah)에서 '이슬람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혁(reform)의 뜻을 나타낸다 (Panda 1989: 13).

72%, 무슬림이 약 20%, 그리고 기타 원주민이 약 8%를 나타내며 여전히 크리스천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무슬림자치지구(ARMM)의 인구구조는 크리스천이 약 8%, 무슬림이 약 89%, 그리고 기타 원주민이 약 3%를 나타내 무슬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림 1> 라나오 델 수르의 지리적 위치



출처: www.zamboanga.com

옴피아당의 지역적 배경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다나오 중서부의 라나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라나오 델 수르이다. 1개의 시와 39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이슬람자치지구(ARMM)에 포함되어 있다. 언어는 전체 인구의 약 88%가 가정에서 마라나오라는 지방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Co 2013: 23). 라나오 호수는 필리핀에서 라구나 호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이며, 18종의 희귀 어종이 살고 있는 고대 호수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발원하는 강에서 7개 수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5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민다나오 전체 전력 공급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 (Panda 2009: 36). 필리핀 이슬람 역사가 마홀(Mahul 1999: 76)에 따르면, 라나오 델 수르 지역에 이슬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이다. 이는 술루지

역에 최초로 이슬람이 전파되기 시작한 14세기 후반과, 술루에 술탄이 등장한 1450년, 그리고 마긴다나오에 술탄이 등장한 1515년에 비해 다소 늦은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김동엽 2013: 271; Finley 1916: 36; Majul 1999: 11-31). 이처럼 이슬람의 전파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나오 사람들의 이슬람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들 사이에는 망고의 전파에 비유한 이슬람의 전파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망고(이슬람의 비유)를 받아들인 부족은 따우숙이며, 이들은 망고의 한쪽 면을 잘라 먹었다. 그 후 망고는 이웃한 마긴다나오 부족에게 전파되었으며, 이들은 그것의 다른 한쪽 면을 잘라 먹었다. 그리고 망고가 마라나오 부족에게 전달 될 때에는 가운데 씨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마라나오 사람들은 그 씨를 땅에 심어 많은 망고를 수확했다” (Cayamodin 인터뷰, 2014.08.03).

위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마라나오는 필리핀 무슬림 중에서 가장 많은 올라미를 배출하고,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사(madrassa)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이슬람 교리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시(city) 단위로서는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무슬림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마라위시(Islamic City of Marawi)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민다나오 지역을 벗어나 다른 필리핀 지역에 모스크를 짓는 사람은 대부분 마라나오 사람들이라고 했다 (Cayamodin 인터뷰, 2014.08.03). 마라위시 거리를 다니는 대부분의 무슬림 여성들은 히잡(hijab)을 착용하고 있으며, 동남아 무슬림 여성들에게는 흔히 볼 수 없는 눈과 손만 제외하고 온 몸을 검은 천으로 가리는 니캅(niqab)을 착용한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오후에 해질 무렵이면 이슬람의 경전 외우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마라위

시 전체에 올려 퍼진다.

<표 1>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10개 도 (2000, 2006)

2000				2006			
도	지역	빈곤율	순위	도	지역	빈곤율	순위
마스베이트	V	61.3	1	따위 따위	ARMM	78.9	1
마긴다나오	ARMM	59.3	2	잠보앙가 노르테	IX	63.0	2
솔루	ARMM	58.9	3	마긴다나오	ARMM	62.0	3
이푸가오	CAR	55.7	4	암빠야오	CAR	57.5	4
라나오 델 수르	ARMM	54.7	5	수리가오 노르페	Caraga	53.2	5
까미긴	X	54.2	6	라나오 델 수르	ARMM	52.5	6
까마리네스 노르테	V	52.7	7	북부 사마르	VIII	52.2	7
따위 따위	ARMM	52.4	8	마스베이트	V	51.0	8
아구산 데 수르	Caraga	52.3	9	아브라	CAR	50.1	9
롬블론	IV-B	52.2	10	미사미스 동부	X	48.8	10

출처: NSO, Poverty Statistics 2000 and 2006. (SoLD, 45)

라나오 델 수르의 경제·사회적 상황은 다른 무슬림자치지구에 속한 지역과 함께 필리핀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필리핀의 81개 도 가운데 라나오 델 수르는 빈곤율이 높은 순위로 2000년에 5위 그리고 2006년에 6위에 올랐다. 또한 아래의 <표 2>에서 보여주듯이 인적개발 지수나 기타 경제사회 지표에서도 필리핀 평균에서 현저하게 뒤쳐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저발전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제기된다. 현지인이 생각하는 저발전의 원인은 주로 반군활동으로 인한 치안 불안과 이로 인한 외부인 투자 감소,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한 개발자금의 사적인 전용 등이다 (Barra 인터뷰, 2014.07.31). 이와 더불어 필리핀 무슬림 지역에 대한 과장된 편견과 오해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했다. 인터뷰한 한 무슬림 교수에 따르면 (Panda 인터뷰,

2014.07.30), 필리핀 사회의 일부에서 무슬림 경제에 대한 사보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일부에서 비무슬림 필리핀 국민들로 하여금 이슬람 지역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하게끔 조장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비무슬림 필리핀 친구들에게 무슬림 지역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이들은 마치 금지된 지역을 가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오랜 분쟁으로 인해 발전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도 저발전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전에 마라위시와 일리간시 사이에 있던 공항도 폐쇄되고, 지금은 가까얀 데 오로 시에 있는 공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마라위시에서 2~3시간 정도를 차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과거 마라위시는 민다나오의 중심도시로서 다른 도시를 갈 때에는 이곳을 경유해야 했지만, 지금은 주변의 다른 도시들을 연결하는 우회 도로가 건설되면서 더욱 소외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표 2> 필리핀 무슬림 지역 사회경제 지표(2000, 2006)

지역/도	인적개발 (HDI)		고등학교 졸업률 (18세 이상)		일인당 소득 (PPP US\$)		기대수명 (년)		소득불평등 (Gini Index)	
	2000	2006	2000	2006	2000	2006	2000	2006	2000	2006
필리핀	0.695	0.716	49.4	55.3	2,260	2,707	67.7	70.6	0.429	0.414
메트로 마닐라	0.774	0.792	74.3	81.1	4,750	5,101	69.9	71.8	0.449	0.397
ARMM	0.533	0.558	30.5	37.0	1,114	1,308	55.5	57.5	0.269	0.264
바실란	0.546	0.592	28.6	38.9	1,074	1,397	60.5	62.1	0.271	0.320
라나오 델 수르	0.542	0.602	35.7	44.9	1,221	1,503	56.7	58.7	0.236	0.263
마긴다나오	0.543	0.535	36.1	40.6	1,052	1,384	55.6	57.6	0.368	0.311
술루	0.511	0.500	18.1	23.1	1,201	1,314	53.0	55.5	0.192	0.183
따위따위	0.525	0.560	34.2	37.4	1,020	942	51.5	53.4	0.276	0.242

출처: Human Development Network 2009, (SoLD, 51, 79, 재구성)

라나오 델 수르 지역의 전통적인 지배계급으로는 술탄과 다투가 있다. 술탄은 이슬람의 전통적 통치자를 의미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어떠한 공식적인 권력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를 과시하는 의미에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술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마라나오 지역에는 15명의 소위 공인된 술탄이 있고, 이 외에도 28명이 스스로 술탄이라 칭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간에 주장하는 영역이 겹치기도 하고, 한 가문에서 여러 명의 술탄이 나오기도 한다. 또 다른 전통적 지배계급으로서 다투가 있으며, 이 계급의 일부는 근대화 과정에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많은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근대적 권력으로 전환되었다. 물론 일부는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뒤쳐져서 권력의 주변으로 몰려난 경우도 있다. 전통적 엘리트로서 오늘날에도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는 인물들은 주로 과거 식민지 지배세력과 결탁한 가문이나, 태평양 전쟁 시 항일 게릴라 활동으로 유명했던 인물들, 그리고 외부세력과 연계하여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라나오 델 수르 지역의 전통적 정치가문으로는 알론토(Alonto), 아디옹(Adiong), 그리고 룡만(Luckman) 가문 등이 있다. 이들은 상호 혼인관계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한 선거 때에 경쟁자로서 맞서기도 한다.⁵⁾

한편, 필리핀 중앙정부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라나오 델 수르를 포함한 필리핀 무슬림 지역으로 많은 비무슬림 외지인들이 이주했다. 이들은 토착 무슬림 주민과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갈등을 야기

5) 벤틀리(Bently 1995)의 알리 디마포르에 대한 연구는 마라나오 정치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전통적 엘리트는 혈연(clan) 관계를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중앙정치의 특정 후원자와 연결되어 있다. 이 후원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높은 빈곤율과 낮은 교육수준, 개인적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전통,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법체계 등은 금권선거, 조직선거, 폭력선거의 토양이 된다. 1959년에 라나오는 북부(노르테)와 남부(수르)로 분리 되었으며, 디마포르 가문은 오늘날에도 라나오 델 노르테에서 강력한 정치가문으로 남아 있다.

시켰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지역의 전통적 정치엘리트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라이벌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만 고조시켰다. 이들은 지역의 발전과 무슬림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중앙 정치세력의 하수인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무슬림들의 불신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전통적 지도자에 대한 불신은 바라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Barra 인터뷰, 2014. 07.31), 대부분의 무슬림 지역 정치인들은 인근의 변화한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가난한 자신의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마라위의 정치인들은 까가얀 데 오로에 살고, 코타바토의 정치인들은 다바오에 살고 있으며, 술루의 정치인들은 잠보앙가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지역구를 원격조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은 무장투쟁과 같은 급진적 선택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필리핀 이슬람 부흥운동은 무장투쟁 세력 뿐만 아니라 개혁적이며 현실 참여적인 이슬람 학자들도 다수 양산해 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는 알림(Aleem)이라 칭하고, 집단적으로는 울라마(Ulama)라 부른다. 코란(35:28)에 따르면 “그의 수하들 중에서 진정으로 알라를 두려워하는 자”를 알림이라고 불렀으며, 모하메드는 이들을 “선지자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울라마는 이슬람 교리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해당 무슬림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무슬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울라마의 자격조건으로 외국에서 이슬람 사상과 법을 공부하고 코란의 언어인 아랍어에 능통한 사람을 일컫는다 (Panda 2009: 4-6). 오늘날 필리핀에서 그 울라마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ayamodin 인터뷰, 2014.07.29).

라나오 델 수르의 울라마가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게 된 것은 1960년대 젊은 무슬림들이 아랍국가에 유학하고 있던 때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젊은 유학생들은 필리핀 무슬림 사회가 처한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필리핀 무슬림 정치인들이 그들을 직접 방문하여 만남으로써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다. 라나오 델 수르 출신 정치인 타마노(Mamintal Tamano)는 그들과의 만남에 대해 “카이로를 방문하여 저들을 만났을 때, 저들의 문명화된 넓은 식견에 감명을 받았다. 장차 필리핀 이슬람 지역의 미래가 저들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았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Panda, 2009: 45-6). 선지자의 후손으로서 울라마는 정교일치를 실현한 전통적 이슬람 공동체에서 종교는 물론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도 담당했다. 근대 들어 울라마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17세기 이집트에서 울라마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지적인 성취는 물론 사회적 영향력도 상실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반면 20세기 이란의 경우에는 울라마의 정치참여가 봉건 왕조를 붕괴시키고 무슬림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Panda 2009: 10). 1970년대 이슬람 부흥운동에 활력을 불어 넣었던 이란혁명은 많은 이슬람 국가의 종교지도자들이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판다(Panda 인터뷰, 2014.07.30)의 의견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울라마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동안 무슬림 사회가 겪어왔던 그 많은 문제들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길이라고 했다.

2) 옴피아당의 설립과 전개

옴피아당은 마히드 뮐틸란(Mahid Mutilan, 1943~2007)의 지도하에 1986년에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 뮐틸란은 어린시절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구두를 닦아야 했을 정도로 가난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역 마드라사에서 공부를 하고, 장학생으로 이집트에 유학을 떠났으며, 그곳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러한 그의 성장배경은 전통적 엘리트들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물틸란은 움피아당의 설립 목적을 이슬람 정신의 사회적 구현에 두었다. 그는 또한 필리핀 무슬림들이 기존의 필리핀 정치체제를 인정해야 하며, 필리핀 국가로의 온전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사상은 1919년 인도에서 조직된 힌디올라마그룹(Jamiat Ulema-I-Hind)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은 인도로부터 파키스탄이 분리되는 것에 반대했으며, 종교에 관계없이 인도 국민들 사이의 통합과 단결을 강조했다 (Panda 2009: 81). 물틸란의 이러한 정치사상은 그동안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투쟁해온 그룹과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다른 많은 온건한 무슬림 조직들이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⁶⁾

움피아당은 1986년 8월 7일 라나오 델 수르에서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정당으로서의 공식적인 등록절차를 밟아 1987년 3월 18일 선관위원회로부터 지역정당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후 1988년에 개최된 지방선거에 후보를 냈으로써 공식적인 선거참여를 시작했다 (Panda 1989: 13-20). 움피아당의 설립 시기는 필리핀에서 오랜 마르코스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화를 이룩한 정치적 변혁의 시기였다. 민주화와 더불어 기존의 정치세력들이 약화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움피아당은 선거개혁을 캠페인 이슈로 등장시켰으며, 기존의 정당들과는 달리 민주적 절차에 따른 후보자 선정, 유권자의 자율적 투표권 보호, 금권선거 배척 등을 적극 홍보

6) 움피아당에 참여한 이슬람 조직들은 다음과 같다: Muslim Missionaries in the Philippines (MMP), The Asatidz in different madaris, The Imam Society (IS) of Marawi City, The Arabic Teachers League of the Philippines(ATLP), The Markas Al-Da'wah, The Muslim Students of Social Reforms (MUSREF), The Darul Ifta Wal Qadah, The Muslim Students Council (MSC), The King Faisal Center Students Organization (KFCO), The Subaanul Muslimeen Tableeg(SMT)-Manila Chapter.

하였다. 이슬람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치연설회에서는 모든 후보자들이 동일하게 종교적 행위를 먼저 실시하고 연설회를 진행했다. 즉 알라의 이름으로 개회를 선포하고, 모하메드에 대한 기도와 이슬람식 인사가 이어지고, 선거와 지도자에 관한 코란의 구절을 암송한 후, 옴피아당의 목표와 목적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올라마가 선거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선거 승리와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 순서로 전개되었다. 기존의 정당들과는 달리 선거비용은 오로지 교통, 음식, 홍보물에만 국한시켜 지출하였고, 유권자들에게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에 대해 코란에 맹세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Panda 1989: 61-63).

옴피아당의 출현은 마라나오 지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오랜 마르코스 독재정권과 협력하여 지역 정치를 독점하던 전통적 엘리트들에게는 강력한 도전이 되었다. 1988년 선거에서 옴피아당은 23명의 후보를 출마시켰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당선되었다. 특히 마라위시에서는 선출직 직위 12개 중 10개를 옴피아당 후보가 차지했다. 단체장 선거에서는 마라위 시장에 틀틸란이 당선되었지만, 마라위시를 제외한 당시 라나오 델 수르 전체 37개 군에서는 오직 1명의 군수만을 당선시키는데 그쳤다. 이처럼 군 단위에서 옴피아당의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우선, 올라마 세력이 마라위시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둘째로, 군 단위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정치인의 지배력이 강했으며; 셋째, 대부분의 군 단위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Panda 2009: 76-7).

옴피아당은 1992년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정당들 간의 선거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라모스(Fidel V. Ramos)를 중심으로 한 정당 연합(LAKAS ng EDSA)에 일원으로 참가했다. 본 정당연합은 1992년 라모스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킴으로써 여권연합이 되었다.⁷⁾ 물론

7) 본 집권연합에 참여한 정당들로는 National Union of Christian Democrats; Patido

본 정당연합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비무슬림 정치세력과 연합함으로써 이슬람적 가치를 정치에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옴피아당이 중앙의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 정치인들의 행태와 차별성이 없어진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정당연합은 단지 옴피아당이 선거부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며, 더불어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의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는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다 (Panda 2009: 98-100). 실제로 필리핀 정당정치의 관행상 정당연합은 참여한 모든 정당들이 자신들의 정강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며, 단순히 선거에서 상호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당시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개표와 집계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부터 획득한 표를 지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정당연합에 참여한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

1992년 선거를 앞두고 마라위시에서는 *이머즈*(IMERGG, Islamic Movement on Electoral Reforms for Good Government)라는 시민사회가 조직되어 선거행태 개혁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머즈*는 정치개혁 운동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였으며, 이 운동에는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들도 일부 참가했다. 1992년 중앙과 지방 통합선거에서 물틸란은 라나오 델 수르의 도지사에 당선되었으며, 옴피아당은 43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시의회 의원 등 대부분의 마라위시 선출직 자리를 석권했다 (Panda 2009, 93). 이후 물틸란은 라나오 델 수르의 도지사로서 2001년까지 3선을 지냈다. 그가 재임하던 9년 동안에 라나오 델 수르의 울라마 정치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울라마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도 점차 증가했다. 물틸란은 선

Democratico; Partido Lakastao; Edsa Party of the Philippines; People's Coalition; Ompia Party; Partido Katutubo 등이 있다.

거 때에 자신은 결코 사적인 많은 부를 축적하지 않을 것이며, 큰 저택과 값비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그는 많은 개인재산을 축적하였으며, 마라위시에 웅장한 저택을 지음으로써 다른 전통적 정치인들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냈다 (Philstar 2007).

2001년에 주민투표를 통해 마라위시는 추가적으로 무슬림자치지구(ARMM)에 포함되었으며, 2001년 11월 26에 있었던 무슬림자치지구 주지사와 부주지사 선거에서 물털란은 실질적인 여권연합(LAKAS-CMC)의 후보로 출마하여 부지사에 당선되었다. 그는 2007년 12월 6일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ARMM의 부지사를 지냈다. 그는 부지사로 재임 중에 무슬림자치지구 교육감을 겸했으며, 이 기간 동안 수많은 학교 선생들이 임금과 수당 미지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Philstar 2007). 올라마가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후, 이제는 종교적 문제가 아닌 국민들 간의 계층갈등과 저발전의 문제 등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대부분의 올라마는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거버넌스의 문제에서는 지식과 경험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편 무슬림 지역에서 올라마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자 정치에 입문하려는 올라마의 수가 증가했다. 옴피아당이 이러한 올라마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올라마는 당을 이탈하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기도 하고, 일부는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기도 했다. 전통적인 엘리트들도 옴피아당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스스로가 옴피아당의 후보로 나서기도 하고, 자신이 후원하는 올라마를 후보로 내세워 옴피아당과의 정치적 연합을 도모하기도 했다 (Panda 2009: 103). 필리핀 지방정치에서 선거의 승패는 주로 중앙 정치세력과의 연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라나오 델 수르

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옴피아당의 지도자 블틸란이 정치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 중에 상당 부분은 그가 중앙정치의 여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도자 블틸란이 2007년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옴피아당은 정당의 주도권 다툼에 휘말려 압둘살람(Elias Abdulsalam)이 이끄는 옴피아당과 하지노르(Abdul Basi Hadji Nor)가 이끄는 옴피아당으로 분열 되었다 (Panda 2009: 46). 이러한 분파적 행태에 반대하여 옴피아당을 이탈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올라마정당(Ulamma Party)이 창설되었다. 이로써 과거 옴피아당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이후 옴피아당은 2008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이면서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민심을 잃고 있던 아로요의 집권여당 (Lakas-Christian-Muslim Democrats)에 통합되었다. 이로써 옴피아당은 올라마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졌으며, 그 명맥을 올라마정당이 이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후의 선거에서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옴피아당에 대한 까야모딘(Cayamodin 인터뷰 2014.07.21 & 27)의 견해에 따르면, 옴피아당은 MNLF나 MILF처럼 기존의 정치체제 자체를 바꾸려 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정치틀 안에 들어가 부패한 전통적 정치인을 몰아내고 올바른 정치를 펼치고자 했다. 그러나 옴피아당의 정치행태는 중앙의 권력과 연계하여 지방의 권력을 장악하는 후원-수혜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기존의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중앙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처럼 옴피아당이 기존의 전통적 정치인들의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중앙집권적인 필리핀 정치체제에서 중앙 정치인과의 연계가 지역정당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옴피아당은 중앙정치 세력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중심인물이 사라지면서 그 세력

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전통적 엘리트들의 강력한 금권 정치가 다시금 부상했다. 2006년 라나오 델 수르 제1선거구에 하원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라는 전통적 엘리트들의 금권선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Barra 인터뷰, 2014.07.31.). 그는 라나오 델 수르 정치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지난 20여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옴피아당이 지역민들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슬람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개혁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IV. 필리핀 이슬람 정당의 한계와 가능성

2014년 9월 10일 필리핀 의회에 제출된 방사모로기본법(Bangsamoro Basic Law)에 따르면, 방사모로 정부는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의회 의석은 최소한 6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Art VI, Sec. 4). 행정부를 구성할 총리(Chief Minister)를 선출하게 될 의회의 의원 선출방식은 40%를 소선거구제로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50%를 정당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나머지 10%를 특정분야, 특히 비무슬림 원주민, 이주민, 그리고 여성을 위한 의석으로 배정하고 있다 (Art VI, Sec 5). 이러한 의원선출 방식은 방사모로 정치체제에서 정당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이슬람 정당들이 중앙의 정당과 연계되어 지역적 대변인 역할밖에 하지 못했지만, 방사모로기본법에서는 방사모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을 오직 지역정당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Art 7, Sec 7). 이러한 측면에서 건전한 이슬람 정당들의 출현과 정당정치의 확립이 방사모로 정당정치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비록 맥락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 필리핀 무슬림 지역에서 발생했던 옴피아당의 경험은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방사모로 정치체제에서의 정당

정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옴피아당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이슬람 정당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하여 제도적 분야, 주체적 분야, 그리고 객체적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도적 분야는 이슬람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를 필리핀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또한 이슬람 정당의 제도화 수준에 관한 문제이며, 필리핀에서 이슬람적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주체적 분야는 이슬람 정당의 주도세력인 올라마의 정치적 역할과 역량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필리핀 무슬림 사회를 민주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끌지 못했던 전통적 엘리트들에 대한 유일한 대안세력으로서 올라마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객체적 분야는 이슬람 정당의 주도세력인 올라마의 정치참여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의식에 관한 문제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곧 정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필리핀 무슬림들이 올라마의 세속적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는 장차 이슬람 정당의 추진 방향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제도적 차원에서 정통 이슬람 국가는 민주주의 체제와는 달리 주권을 신의 뜻에 두며, 정당 혹은 정치인의 역할은 신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권의 소재에 관한 문제는 필리핀 무슬림 사회에서 그다지 큰 논란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이는 필리핀 무슬림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비록 왜곡되게나마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에 익숙해져 있으며, 그러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관해 부정하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다. 방사모로기본법의 전문에서도 민주주의와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기본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종교적 방식이 아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치인을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바라(Barra 인터뷰, 2014.07.31)에 따르면, 서구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인들이 정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만,

이슬람식 민주주의에서는 그것에 더하여 신에게도 책임을 지며, 이는 경전에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규율들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정치인들의 도덕적 기준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도의 기본 정신을 제공하는 이념적 차원에서 필리핀 이슬람 정당의 민주적 역할에 관해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옴피아당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필리핀 이슬람 정당의 제도적 한계는 중앙정당과의 종속적 관계와 이념이 아닌 인물중심의 정당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필리핀의 여타 지역정당들이 가지는 한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필리핀의 정치체제에서 중앙의 정치세력, 특히 여권과의 연계는 지역정당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 정치인들의 관심을 지역의 문제보다 중앙과의 후원관계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아무리 지역적 문제에 정통하고 이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중앙정치세력과 연줄이 닿지 않으면 자신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마루홈에 따르면 (Maruhom 인터뷰, 2014.08.01), 마라나오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지도자, 즉 부패한 지도자를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록 좋은 지도자가 있더라도 중앙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상, 부정과 부패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며, 사법적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현실은 또한 정당의 제도화 수준에도 영향을 주었다. 정당이 이념에 따라 결집되고 능력에 따른 지도자 선출보다는 단순히 중앙에 연줄이 닿을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결집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옴피아당의 경우에도 플틸란의 개인적인 카리스마와 중앙정치와의 연계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플틸란이 사망하자 곧바로 세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경험했다. 옴피아당을 통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제도적 차원의 한계는 대중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옴피아당은 울

라마와 일부 지식인 계층으로 한정된 간부정당 혹은 엘리트 정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옴피아당이 가지는 특이성이라기보다는 필리핀의 다른 모든 정당들이 가지는 일반적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필리핀 정당의 특성은 오랜 식민지적 역사와 경제사회적 계층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김동엽 2008: 44).

방사모로 정부의 출범은 이슬람 정당에게 이전과는 다른 정치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우선 필리핀의 중앙정치와 독립된 독자적인 정당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의원내각제를 도입함으로써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중심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보다 유리한 여건이 주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환경 하에서 이슬람 정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벽들이 가로놓여 있다. 우선 소수 엘리트와 다수 민중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제사회적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제도적 변화만으로 민주적인 정당정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고 정당정치의 점진적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슬람 정당이 일부 무슬림 지식인층만이 아닌 대중정당으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슬람 경전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해서는 종교지도자들의 합의로 가능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해의 경합은 지도자들의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인 대중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이슬람 정치체제 하에서의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관계, 그리고 많은 비무슬림들의 시각에서는 차별이라고 여겨지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제약들도 포괄할 수 있는 대중적 정당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주체적 차원에서 필리핀 이슬람 정당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는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정당 지도자들의 자질이다. 옴피아당과 마찬가지로 방사모로 지역에 새롭게 등장할 이슬람 정당의 주도세력은 특별

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올라마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의 교육배경은 주로 마드라사를 거쳐 아랍의 전통적인 이슬람 학교에서 아랍어와 이슬람 교리를 공부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세속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더구나 정치나 행정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바라(Barra 인터뷰, 2014.07.31)와 마루홈(Maruhom 인터뷰, 2014.08.01)에 따르면, 필리핀 이슬람 지역에서도 전통적인 필리핀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이슬람 원칙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이슬람의 참된 원리에 대한 교육과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올라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올라마들이 자신이 공부한 외국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 필리핀의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이들은 지적했다. 그 결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의 발전과 같은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오피야당과 같이 올라마가 이끄는 필리핀 이슬람 정당이 쉽게 결집력을 상실하는 이유를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말에 따르면 (Jamal 인터뷰, 2014.08.03): “올라마는 아랍 국가에서 유학한 후 귀국하여 주로 지역의 마드라사에서 학생들에게 이슬람법과 경전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러나 마드라사는 정규 교육기관도 아니고, 주로 지역 주민들이 조금씩 기부하는 자금으로 운영되거나 지역 유력자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받는 보수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올라마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 줄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생계문제에 직면하게 된 올라마에게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일정한 보수를 제공하며 역할을 부여한다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러한

울라마의 열악한 생계현실은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울라마 위원회(Ulama Council)를 설치하여 돕기도 하고, 또한 전통적 엘리트들이 일부 울라마 그룹을 조직하여 자신들의 지지그룹으로 삼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방사모로 정치체제의 탄생을 주도한 MILF는 그 동안 이슬람 원칙에 기초한 국가를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전통적 엘리트에 대한 대안세력으로서 울라마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옴피아당의 경험을 통해 종교인으로서 울라마의 사회적 권위가 현실적 거버넌스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목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엘리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울라마의 위치는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새롭게 탄생하게 될 이슬람 정당에서는 울라마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지식을 갖춘 다양한 부류의 인사들이 지도자 그룹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바라에 따르면 (Barra 인터뷰, 2014.07.31),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슬람의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세속의 전문적인 지식이 결합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울라마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주권의 소재를 신에게 두고 있는 이슬람의 원칙은 울라마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사모로 정부가 신정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헌법의 구속을 받는 이슬람적 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이상 울라마도 다양한 정체세력 중의 하나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표 3> 이슬람자치지구(ARMM) 내의 사람/기구에 대한 신뢰도 조사

사람/기구	아주신뢰 (%)	다소신뢰 (%)	중도 (%)	다소불신 (%)	아주불신 (%)	응답거절 (%)	모름 (%)
종교지도자	67	22	7	3	0.8	0.3	0.3
바랑가이 수장	40	31	12	8.6	6.3	1.2	0.7
지역의 원로	39	38	12	5.6	2.7	1	1
시장	33	32	14	9.5	7.4	1.2	1
NGOs	33	30	18	7.9	3.7	2.2	5
봉사단체 지도자	27	31	19	8.7	4.3	1.7	4
경찰	23	33	20	11	10	1.4	1
도지사	22	33	20	12	8.2	1.6	1
전통적 엘리트	20	25	20	11	8.8	4.7	11
의원	18	31	23	13	11	1.9	2
기업단체	15	26	25	14	11	3.3	5

출처: SWS, 2011 (SoLD 170, 재구성). 샘플 수는 약 4,000명 내외.

객체적 차원에서 이슬람 정당의 한계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마라나오 지역에서 올라마가 정치의 일선에 나서게 된 것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는 신뢰와 존경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이슬람민주주의센터(PCID)에서 필리핀자치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필리핀 무슬림들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종교지도자를 꼽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엘리트나 의원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록 다른 종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종교지도자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 불신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즉 전반적으로 과반수의 주민들이 어떠한 유형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크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러한 성향은 선거 시에 그다지 고민하지 않고 선호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음을 말해 준다. 특히 올라마의 경우 종교적 이유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종교 이외의 영역에서 올라마에 대한 평가가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 4> 올라마의 정치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질문	변수	응답수	%
1) 올라마가 마라나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26	52
	아마도	13	26
	아니오	11	22
2) 올라마가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지도자인가?	예	32	63
	아마도	15	30
	아니오	3	6
3) 올라마가 지도자가 되면 이슬람의 본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가?	예	17	34
	아마도	28	56
	아니오	5	10
4) 올라마가 지도자가 되면 우리지역을 개혁할 것인가?	예	22	44
	아마도	28	56
	아니오	0	0
5) 종교적 신념이 이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의 하나인가?	예	38	76
	아마도	12	24
	아니오	0	0

출처: Jamail Nofaisa A. (2012), 설문조사 결과 재구성

* 본 설문 내용은 마라위시에 위치한 민다나오국립대학, KFCIAAS 학부학생 졸업논문의 설문조사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재구성한 것이다. 샘플은 총 50명이며, KFCIAAS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올라마의 정치참여에 대해 조사한 노파이사(Nofaisa 2012)의 설문은 비록 제한된 샘플과 치밀하지 못한 질문이지만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설문 결과를 요약한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 응답자들은 올라마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필리핀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질문을 받으면 ‘아니오’(No)라고 대답하는 것을 꺼린다. 이는 ‘원만한 인간관계’(Sama-Sama)를 중시하는 필리핀의 오랜 전통문화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질문을 하는 상대에게 ‘아니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보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답변하는 경향이 있다.⁸⁾ 이러한 문화를 감안하면 ‘아마도’라는 대답은 부정에 더 가까운 대답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응답자들은 종교적 신념을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으며, 올라마를 무슬림 사회의 이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올라마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올라마의 정치 참여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응답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라술(Rasul 인터뷰, 2014.07.23.)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났다. 그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무슬림 사회에서 종교인들은 그다지 현실정치에 나서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주민들로부터 그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라고 했다. 비슷한 관점에서 마루홈(Maruhom 인터뷰, 2014.08.01)도 필리핀의 올라마는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녀에 따르면, 종교적 문제와는 달리 현실정치에는 이해의 경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교지도자가 이에 관여하게 되면 국민들의 존경을 잃는다고 했다.

8) 혼한 예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 잘 알지 못하면서도 ‘모른다’는 대답보다는 틀릴지라도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길을 물을 때에는 최소한 세 명한테는 물어보고 중복되는 대답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흔히 들을 수 있다.

<표 5> 마라나오 유권자들의 인식 조사

질문	변수	응답수	%
후보자 선택 기준	돈을 주는 사람	48	30.00
	여당 후보	30	18.75
	인척	26	16.25
	야당 후보	15	9.38
	전통적 정치인	12	7.50
	새로운 인물	10	6.25
	기타(종교인)	19	11.88
마라나오 정치 리더십에 대한 평가	개인적 이익에만 관심	46	28.75
	공약을 수행하지 않음	32	20.00
	공약을 수행함	28	17.50
	사회봉사정신 부족	15	9.38
	사회봉사정신 있음	12	7.50
	직무수행을 잘 못함	8	5.00
	직무수행을 잘함	3	1.88
	기타	16	10.00
이슬람 정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	매표 행위	68	42.50
	지도자의 부정직	30	18.75
	유권자 등록 부정	18	11.25
	인척중심 정치	12	7.50
	선거관리인 매수	10	6.25
	부정부패	8	5.00
	기타	14	8.75
마라나오의 정치문제 해결 방안	울라마의 정치 참여 제한	62	38.75
	자격 있는 후보자 선출	38	23.75
	공정하게 후보자 선출	20	12.50
	유권자 정치교육	18	12.50
	매표 방지	10	6.25
	금권선거 후보자 배척	3	1.88
	기타	9	5.63

출처: Abdul Azim, S Decampong (2006), 설문조사 결과 재구성

* 본 설문 내용은 마라위시에 위치한 민다나오국립대학, KFCIAAS 학부학생 졸업논문의 조사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재구성한 것이다. 샘플은 총 160명이며, 마라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보다 많은 샘플로 마라위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데캄퐁(Decampong 2006)의 설문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 ‘돈을 주는 사람,’ ‘여당 후보,’ ‘인척’이 65%를 차지하는 것은 금권선거와 인맥이 지배하는 마라위시의 선거경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후보자 선택 기준과는 상관없이 마라위 주민들은 정치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선거부정 행위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슬람의 원리에 따라 매표와 같은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돈을 받고 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 그다지 꺼리지 않는다. 이는 지역민들의 삶 속에서 종교적 이상보다는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더 우선시 됨을 말해준다. 바라(Barra 인터뷰, 2004.07.31)는 주민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슬람 교육의 강화는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향상시켜 돈에 쉽게 매수당하지 않는 유권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올라마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판다(Panda 인터뷰, 2014.07.30)는 보다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샤리아법이 아닌 인간의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올라마가 효율성을 보이지 못했음을 옴피아당의 경험을 통해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올라마가 현실정치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현 정치가 개혁되고 제대로 운영된다면 올라마는 자신들의 위치로 돌아가 종교적 역할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상과 같이 옴피아당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본 필리핀 이슬람 정당은 제도적 차원, 주체적 차원, 객체적 차원 모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슬람 정당이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이슬람식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옴피아당은 필리핀 무슬림 지역

이 겪고 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대안으로 부상하였으며, 비록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 3G로 대변되는 전통적 정치엘리트와 구분되는 개혁적 대안세력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Panda 2009: 130). 바라(Barra 인터뷰, 2014.07.31.)에 따르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든 권력을 획득하는 그 자체를 선으로 간주했던 전통적 엘리트들의 정치행태에 대해, 올라마는 정당한 수단과 방법이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성취한 결과만을 수용하는 이슬람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방사모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필리핀 무슬림 지역에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새롭게 형성될 정치환경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랜 무력투쟁과 협상을 통해 오늘날 독자적 정치체제의 출범을 가능하게 한 MILF가 전환기를 넘어 방사모로 지역의 정치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자말(Jamal 인터뷰, 2014.07.21)에 따르면, MILF와 전통적 엘리트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많은 대중들이 전통적 엘리트들에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MILF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한 평화협정과 방사모로 정부의 출범이 민다나오 무슬림 정치에 그다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비록 기존의 자치정부를 이끌던 도지사(ARMM Governor)가 총리(Chief Minister of Bangsamoro Government)로 이름이 바뀌고, 일부 권한과 혜택이 증가하겠지만, 근본적인 정치행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라술(Rasul 인터뷰, 2014.07.23)에게서도 비슷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방사모로 지역의 높은 문맹율과 경제적 빈곤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평화협정 그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통적 엘리트들의 불법적 권력 독점과 전횡이라는 과거의 정치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총리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자치정부가 수립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간섭이 훨씬 줄어들 경우 전통적 엘리트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여지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사모로 정치체제가 경쟁적 선거체제로 들어서기 이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정선거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바라(Barra 인터뷰, 2014.07.31)에 따르면, 변호사인 자신이 보기에 필리핀의 법과 민주주의 제도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지만 문제는 이를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했다. 이번 평화협정이 별다른 문제없이 실행된다면, 필리핀 무슬림에게는 새로운 정치사회적 질서를 수립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옴피아당과 같은 개혁적 이슬람정당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필리핀 무슬림 사회는 오랫동안 이슬람의 정신에 입각한 독립 혹은 자치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필리핀에서 독립하여 이슬람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수용한 1국가 2체제를 바탕으로 한 방사모로 정치체제의 출범은 다른 의미에서 필리핀 정부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이슬람적 가치의 사회적 적용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슬람적 가치를 정치현실에 실현하려 했던 옴피아당의 경험은 새롭게 탄생하게 될 방사모로 지역 정당정치에 좋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필리핀 헌법이 신정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정교분리 원칙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이상 방사모로 정부가 이슬람적 원리를 그대로 정치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전의 해석에 있어서 보다 자유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이슬람적 원칙에 내재해 있는 민주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현실

에 적용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판다(Panda 인터뷰, 2014.07.30)는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석은 코란의 정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코란에 정통한 사람이 이를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코란의 기본 정신은 동일하지만, 현실에 대한 적용은 개별 국가가 가지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오늘날 무슬림 국가들이 각기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마라위 시에서 만난 한 익명의 MILF 관계자(Anonymity 인터뷰, 2014.08.02)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화협정에 대해 많은 기대를 내비쳤다. 그에 따르면, 이미 방사모로 지역내의 현 주지사과 시장 등 전통적 엘리트들은 서로 연합하여 다가 올 방사모로 지역선거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MILF의 경우에는 개혁적 성향의 우라마당과 과거 옴피아당의 관계자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투조직이었던 MILF가 방사모로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통치권을 이양받기 위해서는 우라마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의 전통적 정치인들과 경쟁하여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바라(Barra 인터뷰, 2014.07.31)에 따르면, 방사모로기본법(Bangsamoro Basic Law)에 의해 주어지는 전환기(transition period)에 MILF가 주도하는 개혁적 정치세력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제도화 하면 집권 세력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V. 맺음말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필리핀 무슬림 분리독립 운동은 오늘날까

지 약 15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낳았다. 이러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와 더불어 민다나오 지역이 분쟁지역이라고 하는 대외적 이미지 때문에 입은 경제적 손실은 계산할 수조차 없다. 결국 훌륭한 자연환경과 온화한 기후, 그리고 막대한 지하자원에도 불구하고 민다나오 지역은 필리핀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을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 간의 충돌로 해석하든, 중심에 의한 주변의 수탈과 같은 계급갈등으로 해석하든, 혹은 종족갈등의 측면에서 보든 그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분쟁의 당사자 간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려는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 최근 필리핀 정부와 MILF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의회비준과 주민투표와 같은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본 평화협정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며, 이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의도한 방향에 맞게 운영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요건들이 필요하다. 필리핀에서 이슬람식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핵심적 부분인 정당정치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평화협정의 실현여부를 넘어 필리핀 무슬림 지역의 민주적 정치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필리핀에서 소수 무슬림의 존재와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본 평화협정의 진행 과정은 필리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세력으로 흔히들 묘사하는 이슬람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서구적 정치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필리핀 무슬림 사회는 다양한 종족적, 문화적, 구분으로 인해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해왔다. 이러한 다양성 중에

서도 이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적 신념이다. 이와 같은 종족적 다양성과 종교적 통일성은 새롭게 탄생하게 될 방사모로 정치체제에서 정치적 경쟁과 연합의 형태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 필리핀 중앙정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방사모로 지역에 독립적인 정치체제를 형성한다는 것은 근대 이후 필리핀 무슬림이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적 시험이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민주적 정치체제로서 의원내각제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정당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필리핀의 정치현실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한편 그동안 필리핀 지방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던 전통적 엘리트들에 의한 권력 독점과 남용의 문제가 새롭게 탄생할 방사모로 정치공동체에서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전통적 엘리트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적 정치세력의 성공적인 부상이 요구된다. 경제적 발전에 따른 중산층의 확대가 민주적 대안세력을 형성하여 민주화를 주도하는 현상과 같은 일반적인 민주화 이론은 필리핀 무슬림사회의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통적 엘리트에 비해 개혁적 성향을 나타내며 사회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룹이 다름 아닌 종교적 지식인, 즉 울라마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중후반 유사한 맥락에서 울라마의 주도로 탄생했던 옴피아당의 사례는 이슬람 이념에 입각한 개혁정당이 현실정치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옴피아당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는 필리핀의 다른 지역정당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즉 이념보다는 인물이 중심이 된 정당과 중앙 권력과의 연계에 의존한 정당정치 행태가 그것이다. 또한 정당의 주도세력이었던 울라마가 종교적 역할을 떠나 현실정치에 뛰어들면서 정치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또한 올라

마의 내부적 분열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지역민들로 하여금 올라마의 정치적 역할에 관해 회의적 시각을 갖게 만들었다. 비록 필리핀 무슬림 사회의 오랜 정치문화 전통과 사회·경제적 계층구조는 그 당시와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최근 체결된 평화협정으로 탄생하게 될 독립된 방사모로 정치체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치와 독립된 독자적인 이슬람 정당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새롭게 탄생하게 될 방사모로 정치체제에서 전통적 엘리트들에 대한 민주적 대안으로서 이슬람 정당은 옴피아당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즉 종교적 신념과 지식만으로는 이해관계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폐쇄적인 간부정당의 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대중정당의 조직형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계층구조가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함은 많은 타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동안 무슬림 지역의 저발전 문제는 분리독립 운동으로 인한 분쟁과 중앙으로부터의 소외로 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체결된 이번 평화협정은 필리핀 무슬림 지역에 민주적 정당정치의 발전은 물론 경제사회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필리핀, 방사모로, 평화협정, 옴피아당, 이슬람 정당정치

〈참고문헌〉

- 김동엽. 2008. “필리핀의 정당정치와 민주적 정치발전,” 『동남아시아 연구』 18(2): 33-67.
- _____. 2013.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의 발생과 전개: 이슬람 부흥운동의 맥락에서,” 『동아연구』 32(2): 263-300.
- 김형준. 2014. “인도네시아 이슬람 조직 무함마디아의 민주주의적 전통: 지도체제와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4(2): 205-236.
- 유석춘·왕혜숙. 2009. “필리핀 지방정치의 역동성: 북부 수리가와 주의 토착 기독교 종교단체 (PBMA) 사례연구,” 『동남아시아 연구』 19(2): 1-56.
- 이성수. 2013. “이슬람식 민주주의 모델과 아랍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리비아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33(2): 101-132.
- Abinales, Patricio N. 2000. *Making Mindanao, Cotabato and Davao in the Formation of the Philippine Nation-State*.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Bentley, G. Carter. 1995. "Mohamad Ali Dimaporo: A Modern Maranao Datu." Alfred W. McCoy (ed.). *An Anarchy of Families: State and Family in the Philippines*.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pp. 243-284.
- Co, Edna E. A. et al. 2013. *State of Local Democracy in the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SoLD ARMM)*. Quzon City: National colleg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and the Philippine Center for Islam and Democracy.

- Decampong, Abdul Azim, S. 2006. "A Study on Islamic Political Practices in Marawi City." B.A. thesis, King Faisal Center for Islamic, Arabic and Asian Studies, Mindanao State University, Marawi City.
- Donoso, Isaac. 2013. *Islamic Far East, Ethnogenesis of Philippine Islam*. Quezon City: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Press.
- Finley, John P. 1916. "The Mohammedan Problem in the Philippines II." *The Journal of Race Development* 7(1): 27-46.
- Geertz, Clifford. 1968. *Islam Observed: Religious Development in Morocco and Indones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fner, Robert W. 1997. "Islam in an Era of Nation-States, Politics and Religious Renewal in Muslim Southeast Asia." in Robert W. Hefner and Patricia Horvatic (eds). *Islam in an Era of Nation-States, Politics and Religious Renewal in Muslim Southeast Asia*."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3-40.
- Jamail, Nofaisa A. 2012. "Political Participation of Meranao Ulama in Politics: A Perception Among the Students in King Faisal Center." B.A. thesis, King Faisal Center for Islamic, Arabic and Asian Studies, Mindanao State University, Marawi City.
- Lingga, Abhoud Syed M. 2005. "Strengthening ARMM Elections to Promote Peace." *ARMM in Transition Series*. No. 5.
- Majul, Cesar Adib. 1999. *Muslim in the Philippine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Map of Lanao Del Sur - http://www.zamboanga.com/z/index.php?title=Moncado_Kadingilan,_Marawi_City,_Lanao_del_Sur,_P

- hilippines (accessed 28 August 2014).
- Mastura, Michael O. 1992. "Contemporary Politics in Mindanao." in Mark Turner, R.J. May, and Lulu Respall Turner (eds). *Mindanao: Land of Unifulfilled Promise*. Quezon City: New Day Publishers. pp. 147-158.
- _____. 2007. "Political Islam in the 21st Century Philippines: Can It Survive?." in Peter Kreuzer and Rainer Werning (eds). *Voices from Moro Land*. Selangor, Malaysia: Vinlin Press Sdn. Bhd. pp. 175-184.
- Meisburger, Tim. 2013. *Developing Political Parties in the Bangsamoro, An Assessment of Needs and Opportunities*, Pasay City: The Asia Foundation-Philippines.
- Panda. Ali B. 1989. "Ulama Political Participation: The case of the Ompia Party in Lanao Del Sur." M.A. thesis, Institute of Islamic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son City.
- _____. 2009. *Maranao Ulama in Philippine Politics, A Nonviolent Hjjratic Approach*, Marawi City: King Faisal Center for Islamic, Arabic and Asian Studies, Mindanao State University.
- Philstar. 2007.12.06. "ARMM vice gove Mutilan dies in car crash. i n
<http://www.philstar.com/nation/31971/armm-vice-gov-mutilan-dies-car-crash> (검색일 2014. 09.05).
- Tan, Samuel K. 2010. *The Muslim South and Beyond*. Quezon City: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Tibi, Bassam. 1990. *Islam and the Cultural Accommodation of Social*

Change. Boulder: Westview.

[현지 무슬림 인터뷰]

Anonymity. (현) MILF 현장 지휘관. 2014.08.02. Islamic City of Marawi.

Barra, Armin, 울라마 정치인. Former Dean of King Faisal Center for Islamic, Arabi and Asian Studies, Mindanao State University. (현) Professor,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of Malaysia. 2014.07.31, Islamic City of Marawi.

Cayamodin, Jamel Rombo. 현지조사 코디. (현) Professor, Institute of Islamic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2014.07.21.; 2014.07.29; 2014.08.01. Quezon City, Islamic City of Marawi.

Maruhom, Monara M. (현) Chairperson, Graduate Department, King Faisal Center for Islamic, Arabi and Asian Studies, Mindanao State University. Islamic City of Marawi.

Panda, Ali B. 무슬림 언론인. (현) Dean of King Faisal Center for Islamic, Arabi and Asian Studies, Mindanao State University. 2014.07.30. Islamic City of Marawi.

Rasul, Salma T. 무슬림 시민사회 운동가. (현) Executive Director of Philippine Center for Islam and Democracy. 2014.07.23. Quezon City.

<Abstract>

The Future of Philippine Bangsamoro Islam
Political Party:
Lesson from the Ompia Party in Lanao Del Sur

KIM Dong Yeob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ssessed the future of the newly emerging Bangsamoro Islam political party as an outcome of the Comprehensive Agreement on Bangsamoro (CAB) signed by the Philippine Government and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The CAB will create a semi-independent Bangsamoro government under the principle of one-state-two-systems. The Bangsamoro government will be the parliamentary system where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becomes particularly important. Upon the backdrop of the political change, this article tried to draw a lesson from the experience of the Ompia party, which was established earlier to reform the corrupt traditional local politics in Lanao Del Sur. Upon studying, it was observed that the Ompia party failed to reform the local politics. Instead it simply followed the step of the traditional local politics by relying on the personality rather than ideology and seeking the patronage of the central politicians rather than the grass-root support. The Ulama, the leading group of the Ompia party, failed to exhibit its political capacity

to deal with the secular conflict of interests. It was mainly due to the centralized political system of the Philippines, the exclusiveness of party membership structure, and the socioeconomic condition of the constituencies. Despite the failure of the Ompia party, it is undeniable that the Ulama is the only democratic alternative to the corrupted traditional local politics in the newly emerging Bangsamoro politics. The CAB would provide a different political environment that the Ompia party should have adjusted. Based on the lesson from the case of Ompia party, the newly emerging Bangsamoro Islam political party should capitalize this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mass based democratic party structure, and to promote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nstituencies.

Key Words: The Philippines, Bangsamoro, Comprehensive Agreement on Bangsamoro, Ompia Party, Islam Party Politics